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서

《김응서화상》과 《농민생활도》

우리는 18세기의 제능있는 화가 리팔룡이 그린 《김응서화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림은 무관례복을 차려입고 의자에 앉았있는 입진조국전쟁시기의 애국명장 김응서를 그린 것이었다.

그림에는 치켜올라간 두눈썹과 정기도는 눈, 꼭 다문 입을 뚜렷이 부각시켜 담차고 용맹하며 지혜있는 무관의 성격적특질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김응서화상의 말에 의하면

그림은 흔치 않은 애국명장의 초상화유물로서 일정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있을뿐 아니라 조선화의 선명하고 간결한 화법적특질을 잘 살려내고있는 것으로 하여 귀중한 회화유적으로 되고있다고 한다.

《다음은 화가의 명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생활태도를 흥미진진하게 엮은 병풍형식의 《농민생활도》를 보도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김경희화가는 병풍식그림이 있는 곳으로 우리

를 안내했다.

8폭으로 구성된 《농민생활도》에서는 봄의 밭갈이로부터 가을의 마당질에 이르기까지 년중 농민들의 생활을 기본적으로 하여 당시 사회적 급관계와 농촌의 세태풍속을 폭넓게 보여주고있었다.

봄을 맞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모습과 무더운 여름철에 땀흘리며 김을 매는 농민들의 모습이 실감있게 그려져 있었다.

아이들과 녀성들의 뽕마기 와 누에치기, 물레질, 베짜기

등의 생활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었다.

또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 그것으로 음식을 차리는 농민들과 일년 내내 땀흘려 가꾼 곡식을 걸어들여 마당질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부지런히 일하는 농민들과 량반들의 한가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펼쳐보이고 있었다.

행인들로 총성이는 장마당의 풍경도 인상적이었다. 물건을 팔거나 사는 사람, 장을 보러 가는 사람, 돌아오



8 폭으로 구성된 《농민생활도》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인민배우 황영일

황영일은 흥원군의 어느 한 시골에서 3대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다.

청운의 뜻을 품고 10대의 어린 나이에 집을 뛰쳐나와 어거지거 떠돌다가 연극계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두를 팔기도 하면서 흥행단을 따라다녔다.

그후 서울에서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외세가 살판치는 남조선땅에서 진정한 민족예술활동을 할수 없었던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해방과 함께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그는 조선인민군예술풍극(당시) 배우로 입대하였다가 전선사령부 화성공작대에서

활동하였으며 이후로는 국립연극단 배우,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당시) 배우로 있으면서 여러편의 연극과 많은 영화들에서 주역을 맡아 수행하였다.

특히 부영적인물형상에서 그의 연기술은 남달랐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건은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에서 이등박문의 역형상이라고 할수 있다.

그는 한 나라, 한 민족을 눈심 한오리 까막하지 않고 통째로 삼키려고 발광한 이등박문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그리고 강도적인 성격을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

해 지혜와 정열을 아끼지 않았다.

날아든 총알에 맞는 순간 독사처럼 몸을 움크리고 한쪽눈만 지리감은 초췌해지는 이등박문, 조선을 먹으려던 야망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억울함, 죽는 순간까지 침략자의 야수성을 버리지 못하는 표정연기는 성공적이었다.

이런 그에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배우의 칭호도 안겨주시고 늑피 말고 계속 좋은 형상을 창조하라고 고무도 해주셨으며 은정어린 생활상도 보내 주시었다.

본사기자 리철민

새로운 연극작품창작으로 들끓는다

공화국의 국립연극단 창작가, 예술인들이 새 연극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나라의 판공되는 예술단체인 국립연극단에서는 지난 시기 좋은 연극작품들을 창작창조하여 인민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올해에도 새로운 연극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하여 창작의 낮과 밤을 보

내고있다.

연극단의 일꾼들은 예술위원회를 통하여 작품창작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우는 한편 격심없는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창조성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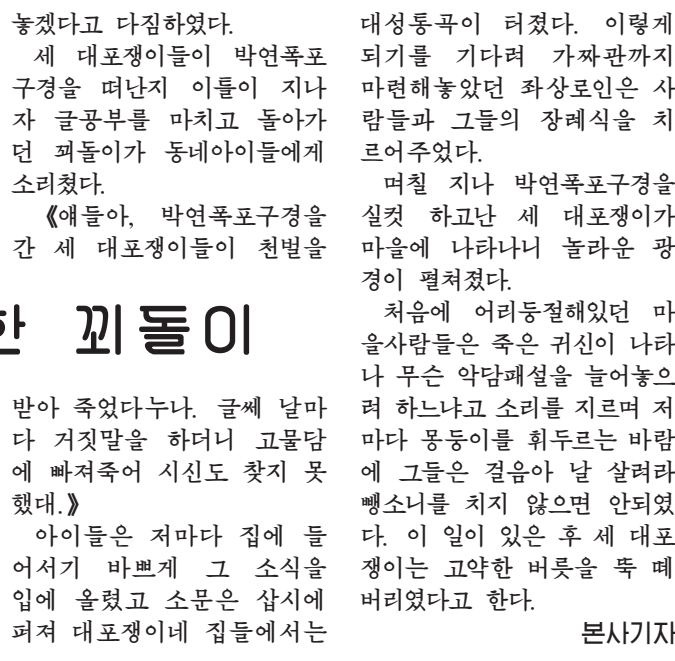
연극단에서는 대본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함대 기초하여 배우들의 장면별연기 훈련을 능숙하게 지도하고 있다. 작품의 종자를 살리는 데 모든 요소를 집중시키는 한편 형상작업을 구체적으로

잘하고있다.

주인역을 맡은 성원들도 연인물의 성격에 대한 탐구를 진지하게 하면서 연기 및 대사형상에 열정을 바쳐가고 있다.

창작창조집단의 힘찬 투쟁속에 연극작품창작사업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조선의 국조를 형상한 우표 발행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조선의 국조인 까치를 형상한 우표(개별우표 4종)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우표들에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속에서 길조로 불리며 친숙해진 까치가 훌륭히 전병된 삼지연시와 송화거리, 경루등의 살림집들과 우리식 농촌문명의 새 모습과 한테

어울려 이채롭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우표들에는 《조선의 국조 까치》라는 글밭도 부각되어 있다.

새로 발행된 우표들은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향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는 공화국인민들의 애국열의를 더해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민요애설

《평북령변가》

《평북령변가》는 서도지방의 대표적인 민요이다.

민요 《평북령변가》는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약산동대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고있다.

가사에서는 연봉홍빛달래로 뒤덮인 약산동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비롯하여 제일봉, 천주사 등 명승고적들을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두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이강유적인 음조와 경쾌하고 유연한 민요곡

린새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밝고 흥취나는 서정을 담아 흐르고있다.

선율은 또한 후렴부분에서도 조점을 길게 설정하고 형상의 폭을 넓게 하여중음로써 가수가 기교를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하여준다.

민요 《평북령변가》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특색있는 선율형상으로 노래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려지고있다.

본사기자

선물하는 꽃의 의미

꽃은 그 종류와 색깔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꽃을 선물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해야 한다.

붉은장미는 진실한 사랑을, 분홍장미는 영원한 사랑과 친절성을 상징한다.

붉은카네이션은 사랑과 존경,

감사의 마음을, 분홍카네이션은 건강과 축복을 상징한다.

국화는 열정과 사랑을, 애국화는 순결성과 결백성을, 들국화는 진실한 사랑과 행복을 의미한다.

나리는 사랑과 우정, 존경을 의미하며 어머니들과 친우들에게 선물할수 있는 리상적인 꽃으로 알려져있다.

본사기자

관청 (4)

글 김석문, 그림 채대성

《과거 일본이 유로인에게 끼친 정신육체적피해는 실로 엄청합니다. 유강산로인뿐 아니라 강제연행되어 끌려갔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수많은 동포들이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원한의 상처를 안고 지금껏 버티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제가 저지른 만행의 피해자들입니다.

때문에 유로인을 비롯한 강제연행피해자들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당한 모든 정신육체적피해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해주었던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을 향해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웨쳐온 수많은 강제연행피해자들에게 역대 (정부)가 한 일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박정희 (정부)는 3억US\$를 연어쓰겠다고 대일청구권전부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로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도 결코 짝지지 않았습디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그 무슨 (경제진흥자, 위안부문제)의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이니 하니 하고 떠들면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 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2천만여였던 우리 나라에서 840만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랍치, 강제연행하여 죽음을 전행관과 공사관들로 끌여갔고 짐승처럼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상해를 입힌 예술품들을 향해 언제 한번 (정부는) 소리높이 꾸짖은적이 없었으며 하나같이 비굴하고 굴욕적이기만 하였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떤가요? 지난 2018년 사죄의 여론과 거대한 압력에 못이겨 일본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친일구결에 환장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전범기업이 몰아야 할 손해배상금전액을 기꺼이 대신 물어주겠으니 제발 관계선을 허락해달라야 손이 야 발아야 비는 추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긴 (대통령)이 되자바람부터 꿈체처럼 허리를 구부린채 부두부두 일본대사를 찾아가 (리넨편향)적추장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미세세대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거리낌 없이 제창해서사다 못해 나중에는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징용문제를 일본과의 (안보, 경제, 무역협력) 등과 맞바꾸어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그랜드마겐) (일팔라결안)이라는것까지 늘어놓아 여론의 못매질을 당했던것이 현 (대통령)이그보면 그것이 뭐 별로 이상할것도 없다 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죽했으면 (미국도 리완용을 쫓아낸)은 특대(특대)라는 점잖아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리속에는 일본이 최정고도 받

주어 더는 민족앞에 수치스럽고 죄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유로인은 비형장으로 갔던것입니다.

이런 그가 무슨 죄인이라 말입니까.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유강산로인도 아흔살 난 병약한 로인이 힘겹게 쳐들어왔던 그 돌맹이가 (외무부) 장관의 면상에 던져지거나도 한것처럼 현실을 과장화대하여 엄청난 범죄로까지 몰아가고있으며 엄벌을 내려야 한다

을습니다. 죄를 범한 피고 는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정)에서 정말로 죄값을 치러야 할 진짜고고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겁니다.

한 인간을 불구로 만들어 놓고 인성전부를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은, 아니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수백만 조선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유린했던 전범기업 일본과 그의 대변자, 충실한 노동자들이 지

금 이 법정에서는 원고의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사죄를 받아야 하고 배상을 받아야 할 진짜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석으로 내

단편소설

관청 (4)

글 김석문, 그림 채대성

《과거 일본이 유로인에게 끼친 정신육체적피해는 실로 엄청합니다. 유강산로인뿐 아니라 강제연행되어 끌려갔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수많은 동포들이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원한의 상처를 안고 지금껏 버티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제가 저지른 만행의 피해자들입니다.

때문에 유로인을 비롯한 강제연행피해자들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당한 모든 정신육체적피해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해주었던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을 향해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웨쳐온 수많은 강제연행피해자들에게 역대 (정부)가 한 일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박정희 (정부)는 3억US\$를 연어쓰겠다고 대일청구권전부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로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도 결코 짝지지 않았습디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그 무슨 (경제진흥자, 위안부문제)의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이니 하니 하고 떠들면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 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2천만여였던 우리 나라에서 840만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랍치, 강제연행하여 죽음을 전행관과 공사관들로 끌여갔고 짐승처럼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상해를 입힌 예술품들을 향해 언제 한번 (정부는) 소리높이 꾸짖은적이 없었으며 하나같이 비굴하고 굴욕적이기만 하였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떤가요? 지난 2018년 사죄의 여론과 거대한 압력에 못이겨 일본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친일구결에 환장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전범기업이 몰아야 할 손해배상금전액을 기꺼이 대신 물어주겠으니 제발 관계선을 허락해달라야 손이 야 발아야 비는 추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긴 (대통령)이 되자바람부터 꿈체처럼 허리를 구부린채 부두부두 일본대사를 찾아가 (리넨편향)적추장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미세세대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거리낌 없이 제창해서사다 못해 나중에는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징용문제를 일본과의 (안보, 경제, 무역협력) 등과 맞바꾸어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그랜드마겐) (일팔라결안)이라는것까지 늘어놓아 여론의 못매질을 당했던것이 현 (대통령)이그보면 그것이 뭐 별로 이상할것도 없다 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죽했으면 (미국도 리완용을 쫓아낸)은 특대(특대)라는 점잖아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리속에는 일본이 최정고도 받

관청 (4)

글 김석문, 그림 채대성

《과거 일본이 유로인에게 끼친 정신육체적피해는 실로 엄청합니다. 유강산로인뿐 아니라 강제연행되어 끌려갔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수많은 동포들이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원한의 상처를 안고 지금껏 버티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제가 저지른 만행의 피해자들입니다.

때문에 유로인을 비롯한 강제연행피해자들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당한 모든 정신육체적피해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해주었던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을 향해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웨쳐온 수많은 강제연행피해자들에게 역대 (정부)가 한 일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박정희 (정부)는 3억US\$를 연어쓰겠다고 대일청구권전부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로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도 결코 짝지지 않았습디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그 무슨 (경제진흥자, 위안부문제)의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이니 하니 하고 떠들면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 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2천만여였던 우리 나라에서 840만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랍치, 강제연행하여 죽음을 전행관과 공사관들로 끌여갔고 짐승처럼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상해를 입힌 예술품들을 향해 언제 한번 (정부는) 소리높이 꾸짖은적이 없었으며 하나같이 비굴하고 굴욕적이기만 하였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떤가요? 지난 2018년 사죄의 여론과 거대한 압력에 못이겨 일본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친일구결에 환장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전범기업이 몰아야 할 손해배상금전액을 기꺼이 대신 물어주겠으니 제발 관계선을 허락해달라야 손이 야 발아야 비는 추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긴 (대통령)이 되자바람부터 꿈체처럼 허리를 구부린채 부두부두 일본대사를 찾아가 (리넨편향)적추장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미세세대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거리낌 없이 제창해서사다 못해 나중에는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징용문제를 일본과의 (안보, 경제, 무역협력) 등과 맞바꾸어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그랜드마겐) (일팔라결안)이라는것까지 늘어놓아 여론의 못매질을 당했던것이 현 (대통령)이그보면 그것이 뭐 별로 이상할것도 없다 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죽했으면 (미국도 리완용을 쫓아낸)은 특대(특대)라는 점잖아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리속에는 일본이 최정고도 받

관청 (4)

글 김석문, 그림 채대성

《과거 일본이 유로인에게 끼친 정신육체적피해는 실로 엄청합니다. 유강산로인뿐 아니라 강제연행되어 끌려갔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수많은 동포들이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원한의 상처를 안고 지금껏 버티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제가 저지른 만행의 피해자들입니다.

때문에 유로인을 비롯한 강제연행피해자들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당한 모든 정신육체적피해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해주었던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을 향해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웨쳐온 수많은 강제연행피해자들에게 역대 (정부)가 한 일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박정희 (정부)는 3억US\$를 연어쓰겠다고 대일청구권전부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로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도 결코 짝지지 않았습디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그 무슨 (경제진흥자, 위안부문제)의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이니 하니 하고 떠들면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 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2천만여였던 우리 나라에서 840만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랍치, 강제연행하여 죽음을 전행관과 공사관들로 끌여갔고 짐승처럼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상해를 입힌 예술품들을 향해 언제 한번 (정부는) 소리높이 꾸짖은적이 없었으며 하나같이 비굴하고 굴욕적이기만 하였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떤가요? 지난 2018년 사죄의 여론과 거대한 압력에 못이겨 일본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친일구결에 환장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전범기업이 몰아야 할 손해배상금전액을 기꺼이 대신 물어주겠으니 제발 관계선을 허락해달라야 손이 야 발아야 비는 추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긴 (대통령)이 되자바람부터 꿈체처럼 허리를 구부린채 부두부두 일본대사를 찾아가 (리넨편향)적추장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미세세대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거리낌 없이 제창해서사다 못해 나중에는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징용문제를 일본과의 (안보, 경제, 무역협력) 등과 맞바꾸어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그랜드마겐) (일팔라결안)이라는것까지 늘어놓아 여론의 못매질을 당했던것이 현 (대통령)이그보면 그것이 뭐 별로 이상할것도 없다 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죽했으면 (미국도 리완용을 쫓아낸)은 특대(특대)라는 점잖아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리속에는 일본이 최정고도 받

관청 (4)

글 김석문, 그림 채대성

《과거 일본이 유로인에게 끼친 정신육체적피해는 실로 엄청합니다. 유강산로인뿐 아니라 강제연행되어 끌려갔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수많은 동포들이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원한의 상처를 안고 지금껏 버티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제가 저지른 만행의 피해자들입니다.

때문에 유로인을 비롯한 강제연행피해자들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당한 모든 정신육체적피해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해주었던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을 향해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웨쳐온 수많은 강제연행피해자들에게 역대 (정부)가 한 일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박정희 (정부)는 3억US\$를 연어쓰겠다고 대일청구권전부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로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도 결코 짝지지 않았습디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그 무슨 (경제진흥자, 위안부문제)의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이니 하니 하고 떠들면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 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2천만여였던 우리 나라에서 840만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랍치, 강제연행하여 죽음을 전행관과 공사관들로 끌여갔고 짐승처럼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상해를 입힌 예술품들을 향해 언제 한번 (정부는) 소리높이 꾸짖은적이 없었으며 하나같이 비굴하고 굴욕적이기만 하였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떤가요? 지난 2018년 사죄의 여론과 거대한 압력에 못이겨 일본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친일구결에 환장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전범기업이 몰아야 할 손해배상금전액을 기꺼이 대신 물어주겠으니 제발 관계선을 허락해달라야 손이 야 발아야 비는 추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긴 (대통령)이 되자바람부터 꿈체처럼 허리를 구부린채 부두부두 일본대사를 찾아가 (리넨편향)적추장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미세세대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거리낌 없이 제창해서사다 못해 나중에는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징용문제를 일본과의 (안보, 경제, 무역협력) 등과 맞바꾸어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그랜드마겐) (일팔라결안)이라는것까지 늘어놓아 여론의 못매질을 당했던것이 현 (대통령)이그보면 그것이 뭐 별로 이상할것도 없다 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죽했으면 (미국도 리완용을 쫓아낸)은 특대(특대)라는 점잖아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리속에는 일본이 최정고도 받